

[나의 초보 양육기 3] “양육하면서 믿음의 확신 가졌죠”

박공 집사 / 2002 / 페이지 수: 2

내가 일대일 양육을 받을 때 나를 양육했던 양육자는 나를 만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었다. “온누리교인이라면 누구나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지속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나에게 의무감과 책임감을 갖게 했다. 당시 내가 ‘오십이 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친다는 말인가?’라는 생각과 ‘대충 대충 과정만 끝내주십시오’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더욱 강조하신 것 같기도 하다. 3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는데도 나이 50이 넘어서야 일대일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다고 양육자는 꼬박 1년간 나를 양육했다. 그런 노력에도 나는 당시 도무지 양육자가 이해되지 않았다.

긴 양육을 끝내고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양육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첫 동반자를 양육할 때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동반자에게 시켜놓고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지 않다는 막막함을 비롯,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시며 형제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무엇인지 몰랐다. 또 실제 전도경험이 별로 없는데도 이론적으로만 양육을 했다. 사역 과목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 오히려 동반자가 더 훈련되어 있었고 현장경험도 많았다.

의무감으로 시작했던 양육

이런저런 문제점이 많이 있었지만 당시 나로서는 열심히 헌신하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때로는 내게도 시간이 부족했지만 시간이 없다는 동반자를 찾아 퇴근 후 집으로 가는 등 열심을 냈다. 숙제와 예습을 준비하지 않은 동반자를 설득할 때는 마치 나 자신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 기도하면서 포기 하지 않았다.

그렇게 다섯 번 정도 양육하고 나서야 내가 무엇을 더 배워야 할지 깨닫게 되었다. 바로 내가 일대일 과목을 스스로 실천하지 않으면서 가르치고 있다는 점이였다. 그래서 일대일 교재의 한 과목 한 과목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더 깊이 삶에 적용하면서 배워 나갔다.

그 후부터 동반자가 바뀔 때마다 삶을 나누는 깊이와 폭이 넓어졌고 무엇보다 앞서 동반자와 나눔이 후속 동반자에게 좋은 교훈이 되었다. 어려운 난제는 다시 공부하고 실천해보면서 나의 배움이 쌓여가는 것을 현저히 알게 되었다. 반복되는 양육과정이 나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후속 동반자에게도 좋은 영양을 공급할 수가 있었다.

돌아보면 내게 큰 유익

좌충우돌하면서 지나온 초보양육과정을 통해 나는 많은 것을 체득하고 배웠다. 무엇보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게 되었고 ‘개인전도’와 ‘직장선

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직장신앙생활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서 직장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진행한 나의 일대일 동반자는 그 동안 30명이 넘어섰다. 30명 중에는 열심히 양육에 참여한 동반자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던 동반자도 있었다. 그래도 그들이 나와 동일한 양육자로서 성장하여 같은 어려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동역자가 되었고, 될 것이다.

이제 양육을 시작하는 양육자들에게 말하고 싶다. 양육하는 동안 어려움도 있겠지만, 쉬지 않고 계속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엄청나다는 것을.

*** 출처 : 큐티와 일대일**